

## 《학생들에게 즈-무인! (Zoom 인)》

기다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 교원  
한미우

처음은 그저 룡담이라고  
누가 곧이 들었을까  
원격교수냐, 온라인학습이냐,  
누가 진담으로 받아들였을까

바로 곁에 계셨다  
주저앉기만 하지 말자고  
학생들의 배움터를  
우리는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그 누구의 지시를 기다리기전에  
우리가 새 모습을 창조하겠다고  
우리 학생들 위해 일떠서자고  
기발을 추켜올리신 교장선생님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자고  
활활 타오르는 그 열성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으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Zoom 여, 로이로노트여  
귀에 익히지 못한 모든 수단을 리용하여  
교원들은 일떠섰다

학생얼굴도 아직 익히지 못한채  
밤새껏 교수준비하시는 신임선생님,  
비디오카메라앞에서 목청껏 노래부르며  
힘있게 춤추시는 유치원선생님들,

몇번이나 수업을 록화하고는 실패하고

영상을 편집하고는 또 실패하고  
마음대로 교수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떠오르는 학생들 얼굴  
온갖 어려움이 닦쳐와도  
지금이야말로 정면돌파!

비록 눈앞엔 학생들이 없다 한들  
뜨거운 정열로 아글타글  
학생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운다는  
우리의 사명은 다름없으리  
나는 오늘도 혼자 교실에서  
웃으며 힘차게 수업을 한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넘치는 학교가 돌아올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며